

펠리페 “K리그2 주인공은 나야 나”



광주FC의 '우승 공신' 펠리페가 K리그2 시상식 주인공도 예약했다.

광주는 지난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36라운드 대전시티즌과의 경기를 끝으로 2019 시즌을 마무리했다.

팀을 1-3으로 졌지만 올 시즌 27경기에 나와 19골을 넣은 펠리페는 '득점왕'이 됐다.

팀의 우승을 이끈 펠리페는 득점 1위까지 차지하며, 베스트 11과 MVP까지 '3관왕'을 예약했다.

예상과 달리 그라운드가 아닌 관중석에서 최종전을 보낸 펠리페는 "득점왕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개인 타이틀을 바라고 시즌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열심히 훈련했고 팀원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선수들, 코칭스태프, 팬, 팀과 관련된 모든 분들,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활짝 웃었다.

수원FC의 치숨이 1골 차로 추격을 해온 만큼 펠리페의 최종전 출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펠리페는 대기 명단에도 빠지면서 관중석에서 팀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봤다. '팀이 우선'이라는 게 펠리페의 이야기였다.

펠리페는 "승격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경기 자체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며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이런 컨디션으로 뛸 때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감독님과 상의하고 결정했다. 만약 치숨이 득점왕을 했다라도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큰 욕심은 없었다고는 했지만 '득점왕'은 공격수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내심 신경은 쓰였다.

K리그2 시즌 마무리

광주 FC 대전과 최종전 1-3 패
펠리페, 득점왕·베스트11·MVP
연말 시상식 3관왕 예약

3월 아산과 홈 경기서 헤트트릭 등
올해 27경기서 19골 기록
펠리페 골 넣은 12경기 9승 3무

"집중 견제에 평점심 잃은 것 후회
1부리그선 더 성숙한 모습 보일 것"

펠리페는 "수원FC가 부천FC와 상대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팀 경기를 봤지만 하프 타임 때 수원FC의 경기를 확인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3월 3일 서울이랜드와의 시즌 개막전부터 골맛을 본 펠리페는 3월 10일 아산과의 홈 개막전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19차례 골을 터트렸다.

펠리페가 꿈은 최고의 장면은 6월 29일 대전 원정에서 나왔다. 전반 14분 김정환의 패스를 받은 펠리

페는 왼발로 골대 오른쪽 상단을 꿰뚫었고, 이 골은 1-0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 됐다.

펠리페는 "스스로 만족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한 골은 지난 대전 원정 때 넣은 중거리 골이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넣은 모든 골이 의미가 있다. 팀 승리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 소중한 골"이라고 말했다.

그의 골은 광주에도 소중한 골이었다. 펠리페가 골을 넣은 12경기에서 광주는 9승 3무를 기록했다. '해결사'가 된 펠리페는 '팀'을 말했다.

펠리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팀원 모두가 도와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골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넣을 수 있다"며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한 팀으로 한 생각으로 해서 좋은 골을 넣을 결과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물론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펠리페는 집중 견제를 받느라 속을 끓였다. 계속된 견제에 자제력을 잃고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펠리페는 "1위로 우승을 하며 승격을 하게 된 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하고 좋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퇴장을 당하면서 팀에 피해를 준 것이다"며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내년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부와 2부리그 차이는 있을 것이다. 수비수도 더 잘하는 선수들이고 견제가 심해질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 수 없다"며 "공격수로서 골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즌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싶다. 한 경기 한 경기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시즌처럼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고 K리그1을 준비하는 각오를 밝혔다.

/대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더 젊어지고 공격 루트 다양해질 것”



광주 FC 박진섭 감독 “10여일 휴가 즐기며 시즌 구상”

'예상 적중' 2019시즌을 보낸 광주FC 박진섭 감독이 2020시즌 '젊은 반란'을 꿈꾼다.

K리그2 우승팀 광주가 지난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2019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앞선 홈 폐막전에서 전남대래콘즈에 1-2로 홈 첫 패를 기록한 광주는 이날 경기도 1-3으로 내줬다. 첫 연패로 시즌이 끝났지만 광주 사령탑 박진섭 감독에게는 미래를 그린 세 경기, '예상 적중'의 해였다.

최종전이 끝난 뒤 박 감독은 "마지막 경기이자 경기 안 나갔던 선수들의 시험장이었다. 동기부여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동안 경기를 안나가서 그런지 선수들이 몸이 안 좋았다. 나중에 집중력

도 떨어졌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이 어린 선수들이 앞선 수원전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만족스럽다. 내년 스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히 정현우와 손민우가 경기 많이 못 뛰었는데 훈련 열심히 해왔고, 자신감도 있었다. 내년 활용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33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박 감독은 이후 세 경기를 통해 광주의 '젊은 힘'을 확인했다.

34라운드 수원FC전에서 펠리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교체해 들어간 김정환이 멀티골을 터트렸고, 임원상도 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최종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손민우와 기회를 얻은 정현우도 어필 무대를 가졌다.

박 감독은 "아직 부족하게 많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잘 풀렸다. 승격이 1번이었다. 내가 여기온 이유는 승격을 하기 위해서다. 우승을 하든 2, 3등을 하든 승격이 목표였는데 그걸 이뤄서 100점을 주고 싶다"며 "작년을 지나면서 선수들이 좋아졌다. 동계훈련도 잘했고 밑에 선수층도 두텁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초반에 어느 상대와 붙어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시즌을 돌아봤다.

19경기 연속 무패로 승승장구했던 광주는 20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1-7 대패를 당했다. 하지만 이어진 수원FC전 승리로 위기를 넘기며 21승 10무 5패(승점 73)라는 승적 시나리오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박 감독은 "3월에 시즌 계획서를 내면서 21승 10무 5패를 썼다. 그래야 승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다. 다시 그 자료를 보는데 소름이 돋았다"고 웃었다.

또 다른 목표 설정에 앞서 박 감독은 선수 구성과 공격 루트 개발에 우선 신경 쓸 생각이다.

"체크하고 싶었던 선수들이 있었다. 책임감 가지고 해줬으면 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선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선수단 변화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기존 선수에 필요한 자리를 보강하는 선이 될 것 같다"며 큰 틀을 언급한 박 감독은 "펠리페에게 집중이 된 경기가 많았다. 공격 부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두 번째 해 승격 목표를 이룬 박 감독은 잠시 축구를 내려놓고 충전의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박 감독은 "시즌이 끝나서 아쉽기도 하고 내년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다. 당분간 조금 쉬려고 한다"며 "2주간의 훈련도 스트레스, 압박감 내려놓고 즐기려고 한다. 즐기면서 내년 시즌을 구상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중동 원정길

14일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19일 UAE서 브라질과 평가전

'완전체' 벤투호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위해 중동 원정을 떠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레바논과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 브라질과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10일 소집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

UAE 아부다비에 여장을 푸는 대표팀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레바논으로 건너가 다음날 오후 10시 베이루트의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북방' 레바논을 상대한다.

한국은 2차 예선 H조에서 2승 1무로 5개 팀 중 1위(승점 7·골득실 +10)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2위 북한(승점 7·골 득실 +3)과 승점이 같고 골 득실에서 앞서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벤투호는 이번 레바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북한과 격차를 벌여야 내년엔 펼쳐질 2차 예선의 후반 4경기를 한결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8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한국에 일격(2-1 레바논 승)을 날려 '레바논 쇼크'를 준 전력에 있는 레바논은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상대다.

레바논전 뒤에는 벤투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하는 올해 마지막 '고난도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30분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남미 최강 브라질과 처음으로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조호와 군단' 브라질은 2019.코파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남미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골잡이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부상으로 제외됐지만, 소집명단에 오른 면면은 여전히 화려하다.

피르미누(리버풀)와 가브리엘우 제수스(맨체스터 시티), 카제미루(레알 마드리드), 필리피 코치뉴(바이에른 뮌헨) 등이 태극전사들을 상대한다.

벤투호 역시 이번 중동 원정에 최정예로 나선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을 뛰어넘어 유럽 무대 한국인 최다 124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황희조(보르도), 이강인(발렌시아),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해외파들이 총출동한다.

내달 10-18일 열리는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는 국내파 선수들만 소집할 수 있어, 벤투 감독으로서 이번 중동 원정이 해외파 선수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연합뉴스

펼펼~ 나는 손흥민

EPL 셰필드전 리그 3호골 폭발 팀은 1-1...토트넘, 5경기 연속 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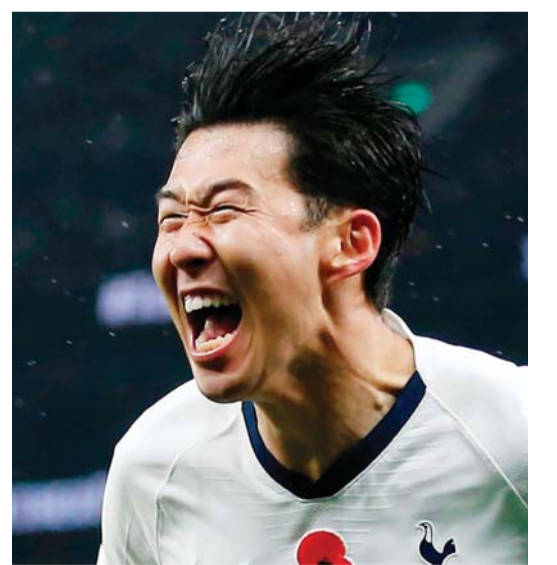
손흥민(27·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잇따라 골을 터뜨리고 있다.

손흥민은 10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3호골(시즌 8호골)을 넣었다.

이번 골로 개인통산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도 124골로 늘었다. 지난 7일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한 손흥민은 이후 골을 넣을 때마다 기록을 새로 쓴다.

토트넘은 이날 해리 케인을 선두로 4-2-3-1 전술을 펼쳤다.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다.

후반 13분 골 지역 앞에서 알리가 찬 해리 케인을 향한 패스가 셰필드 수비수 스티븐스에 막혔다. 하



지만 스티븐스 발에 닿은 공이 흘러나오자, 골 지역 안쪽으로 미리 진입했던 손흥민이 가로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슛을 꽂아넣었다.

한편 토트넘은 이날 후반 33분 셰필드 조지 발독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경기로 토트넘은 정규리그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을 기록했다. /유엔제 기자 yjyou@